

스타들의 '외출'은 언제나 특별하다. 남다른 감각과 개성으로 유행을 이끄는 이들인 만큼 무엇을 입고 걸지는지 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스타의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집중 해부한다. 장소와 분위기, 시간 등 '상황'과 얼마나 어우러지는 스타일인지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레트로와 명품의 만남 패션의 완성은 꽃무늬



▲ 물방울무늬 원피스는 여성스러운움을 강조하며 복고 분위기를 연출했다.



▲ 흰 블라우스에 독특한 무늬 캐미솔을 겹쳐 입어 맛깔스러움을 최소화했다.



▲ 티셔츠에 멜빵바지를 입어 '친구 같은 엄마'의 발랄함을 보여줬다.

연기자 공효진의 '스타파워'가 드라마 안팎에서 빛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와 '로코 여신' '공블리' 애칭에 걸맞은 모습으로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공효진의 활약으로 9일 방송분은 13.1%(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근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채널까지 전제적인 시청률 하향세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적이다.

화면 밖에서는 여성 팬들에게 '워너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몸에 두르고 걸친 모든 아이템은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 시청자들은 공효진의 연기 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라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꽃무늬 베이스 레트로+빈티지 믹스 매번 다른 앞치마... '멜빵 치마' 착각
톤다운 방식 '겹쳐 입기'가 키포인트
화려한 옷엔 자연스런 메이크업 중요

●레트로+빈티지 무드

극중 공효진이 맡은 역할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서울 여자, 동백이다. 캐릭터 설정을 위해 레트로(복고)와 빈티지(낡고 오래된) 콘셉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백이라는 이름처럼 꽃무늬를 기본으로 한 블라우스와 원피스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흰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포인트인 블라우스, 하늘색 바탕에 빨강과 하얀 꽃무늬가 빼곡히 그려진 원피스 등으로 레트로와 빈티지 스타일의 특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꽃무늬도 큼직한 것부터 조그마한 것까지 다채롭다. 그의 스타일리스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구제패션 매장이 몰려있는 서울 동묘, 동대문, 광장시장 등에서 발품을 팔아 옷을 구해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과 믹스매치해 선보인다.

9월18일 첫 회에 등장한 황용식(강하늘)이 서점에서 첫눈에 반한 동백의 옷이 레트로의 정석이다. 단추가 한 줄로 길게 달려 있는 물방울무늬 원피스에 같은 소재의 벨트를 부착했고, 어깨 라인에 퍼프 스타일이어서 1980년대 패셔니스타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멜빵바지와 치마, 점프수트 등을 통해서는 '친구 같은 엄마'를 표현

하기 위해 의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매력은 10대 팬들에게까지 통했다. 극중 초등학교 아들 필구(김강훈)와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다가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친구처럼 다가온다. 연약한 것 같지만 강단 있는 '걸 크리시' 이미지에 호응하고 있다. 실제로 2일 개봉한 주연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극장 무대인사 현장에서는 공효진을 향한 응원과 함께 "언니"라고 환호하는 10대 관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공효진은 앞치마까지 패션으로 소화하고 있다. 극중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역이라 장면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다. 단 한번도 똑같은 디자인을 입지 않았으며, 무릎 기장의 기본 스타일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효진은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매번 빠지지 않는 만큼 일상복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며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지금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공효진의 스타일리스트 이보람 이사는 "동백 스타일은 레트로와 빈티지 특징을 적절히 혼합해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효진이 제가 구상한 스타일을 100% 이상 소화하며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너도나도 공효진 따라하기

공효진의 패션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자극을 안긴다. 잔뜩 꾸밈지만,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다.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휘감지 않지만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그의 SNS에서 엿볼 수 있는 평소 스타일도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평범하지만 하나의 아이템에 포인트를 줘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다.

동백의 스타일 따라잡기는 '겹쳐 입기'만 잘 하면 50% 성공이다. 공효진은 서로 다른 소재의 원피스를 겹쳐 입고, 심지어 일상복 위에 앞치마를 입어 정면에서 봤을 때 멜빵치마로 착각하게 하는 '페이킹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다. 무늬가 화려한 의상에는 단색이나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겹쳐 입는 톤 다운 방식을 활용한다.

이 이사는 "레트로와 빈티지 스타일의 옷은 디자인이나 색깔이 뽀아내는 이미지가 강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공효진이 입으면 촌스러운 복고 패션도 멋스럽다.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레트로와 빈티지 스타일을 선보이는 그는 완벽한 소화력으로 앞치마까지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민티, 나이 속이고 '고등래퍼2' 지원



가수 민티가 나이를 속이고 작년 방송한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티의 소속사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실제 나이는 만 26세"라며 "2002년생(17세)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적 사정과 부담감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고등래퍼2' 지원 영상으로 화제가 된 민티는 9월28일 싱글앨범 '아르카디아'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김준현 맥주 모델 논란



개그맨 김준현이 음주운전 전력에도 맥주 광고 모델로 발탁돼 후폭풍이 거세다. 맥주브랜드 카스는 8일 새 광고 모델로 에이핑크 손나은과 김준현을 선정했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김준현이 모델로 나서는 게 옳지 않다"며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준현은 2010년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인 취중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 당시 김준현은 4개월간 자숙하고 복귀했다.

'어게인 가요톱10' 12일 이승환 특집



KBS가 가수 이승환의 데뷔 30주년을 맞아 유튜브채널 '어게인 가요톱10'에서 특집 방송을 마련한다. KBS는 10일 "'오직 당신의 뮤지션을 위한 날 4탄-이승환 데이'를 12일 실시간 방송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빅쇼'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등 이승환이 그간 출연한 12개의 KBS 음악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승환은 1989년 정규앨범 'B.C 603'으로 데뷔해 '팅 빈 마을'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을 히트시켰다. 데뷔기념일인 15일 12집 '플루 플레이 후'를 발매한다.

이제훈, 영화 제작사 '하드컷' 설립



배우 이제훈이 영화 제작사를 설립했다. 이제훈의 소속사 사립엔터테인먼트는 10일 "이제훈이 양경모 감독, 김유경 PD와 함께 '하드컷'이라는 영화 제작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훈이 제작자로 처음 나서는 영화는 12월 첫 촬영을 앞둔 양경모 감독의 '팬텀'(가제)"이라며 "출연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영화 '밤은 그들만의 시간'으로 데뷔한 이제훈은 영화 '고지전'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슈퍼엠, 美 토크쇼 '엘렌쇼' 출연

그룹 슈퍼엠이 NBC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엘렌쇼)로 미국 TV에 데뷔했다. 슈퍼엠은 10일(한국시간) 방송한 '엘렌쇼'에서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자랑'과 수록곡 '아이 캔 스탠드 더 레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엘렌 펀드'에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기부했다. 4일 데뷔한 슈퍼엠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카이, NCT127 태용·마크, 중국그룹 웨이비 루카스·텐이 모인 7인조 그룹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